내 삶에 대해선 나만 선지자

(스가랴 13:1~9)

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4.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5.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에 대해선 나만 선지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삶에 대해선 나만 선지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께 찾아와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합니다. 이사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또 어떤 교인은 결혼 문제로 상담하고 사업 문제로 찾아오는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께서 상담을 필요로 하여 상담자를 찾아가셨을 때에 어떤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담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적 상담의 기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A, B, C라는 세 명의 청년에게 구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상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상대에 대해 고민하는 아가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상담자인 목사님에게 “저 여자의 짝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A, B, C에 대해 들어보고 내 생각에는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면 설령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가씨의 문제는 누구와 결혼하느냐 혹은 결혼자체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씨의 진짜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왜 나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결혼에 대한 상담은 필요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누구와 해야 할지는 목사님의 조언을 따를 일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아가씨의 마음과 하나 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사 문제로 고민하는 교인이 있다고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교인의 진짜 문제는 이사를 하느냐 마느냐 혹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이사로 고민하며 목사님께 조언을 구한다는 것부터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의 교인에게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인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혹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해 직접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담을 받는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언 기도를 한다거나 기독교식 상담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타인의 삶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고 하십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서 선민이 행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대해선 나만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날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고 하였습니다. 내 목자는 선민들을 이끄실 목자로써의 예수님을 말하고, 내 짝 된 자 또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칼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 때문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죄와 더러움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칼로 치듯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상담의 예를 통해 죄와 더러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마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결혼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마음에 결혼을 담음으로써 불결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는 청결함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야 말로 청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직접 나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죄 없는 결혼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이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결혼하다면 그것은 죄악의 결혼이고 더러움의 결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나타난 죄는 히브리어 “하타”로써 과녁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충만함을 지향합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는 것입니다. 그 채움의 대상이 바로 과녁입니다. 돈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돈을 과녁 삼은 것입니다. 결혼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혼을 과녁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 죄악과 더러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씻을 수 있습니다. 샘이 솟아오르면 날마다 그곳에서 마시고 씻을 수 있듯이, 우리는 날마다 과녁을 벗어난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해 깨끗해 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해야만 합니다. 목사가 목회로 기뻐하려 해도 죄악이 되고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해도 죄악이 됩니다. 이러한 죄악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샘이 되어서 날마다 씻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사건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메시아 시대에 없어질 대상으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즉 메시아로써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하였고 6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환상, 털옷, 가슴의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일반인을 구분하는 징표였습니다. 가슴의 상처는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적 열광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표식을 남기기 위해 자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렇게 선지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3절에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에 대해 부모가 칼로 찌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하려는 자가 있으면 패륜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두고 선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기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해석도 신앙적 핵심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서 나를 깨끗하고 의롭게 하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 됨을 준비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깨끗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짝 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짝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짝이 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됩니다.

성경은 선민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선민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형편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 또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에 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라고 하거나 결혼 상담을 하러 온 사람에게 누구와 결혼하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나서서 칼로 찔러야 할 정도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선민이라면 하

나님과 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답시고 끼어들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단짝이 되시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선민이라는 사람이 앞날을 알기 원해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궁금해 하고 판단을 타인에게 넘기고자 하는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확신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해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며 메마름과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삶의 문제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언하고 상담해준다는 패륜아들을 굳이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이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복음 사건이 일어난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과 예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언의 은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언을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일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예언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언은 현재 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지금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테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남쪽 지역을 달리는 모든 열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호남선과 경부선이 같은 서울역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같은 열차는 아닙니다. 여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부산가는 열차에 타고 있다면 절대 여수에는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선지자가 하는 일이란 예언을 통하여 잘못된 기차를 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똑같은 기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아도 몇 시간 뒤에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리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벌어진 거리를 유지한다면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요청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예언의 은사 또한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현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결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의 삶을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을 구약의 사건들에 비추어보고 적용하여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언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부모가 나서서 칼로 죽여야 하는 패륜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듣는 사람들의 더러움과 죄 속에 빠져있는 마음을 십자가 앞까지 끌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직접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목사님들이 사업하는 장로님들 앉혀놓고 이리저리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님께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업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할 때에야 비로소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또한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아가씨에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말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누구와 결혼하라는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써 예언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삶에서 선지자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자기 삶의 유일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야만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전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감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내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생활화가 나의 직업이자 과제이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